

부마민주항쟁 25주년 기념식 메시지

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,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,

안녕하십니까? 부마민주항쟁 스물다섯 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던 그 시절, 부산과 마산시민이 일어섰습니다. '계엄철폐', '독재타도'의 함성은 철옹성 같았던 유신독재를 마침내 무너뜨렸습니다.

부산과 마산은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. 부마항쟁 뿐만 아니라 4·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·15의거,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6월항쟁 모두 우리들의 가슴 속에 큰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. 지금의 참여정부도 그 토대 위에서 서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여러분의 용기와 애국의 열정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.

얼마 전 ASEM 정상회의와 인도·베트남 방문에서도 저는 국제사회에서 한층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밖에서 보는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확실히 기회를 가지고 있고, 또 기

회를 만들어낼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

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감입니다. 우리의 역량에 대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.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,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.

항상 시대적인 소명에 앞장서 온 부산과 경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